

“디카프리오 머리 따라해...잘생기게 나와 만족”

최우식 영화 '사냥의 시간'서 사냥꾼에게 쫓기는 청년 연기 기혼 '기생충'으로 인기...“오디션 테이프 보내며 할리우드 진출작 논의 중”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으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얼굴을 알린 배우 최우식(30)이 이번에는 넷플릭스로 공개된 '사냥의 시간'을 통해 시청자들을 만났다. 희망이 사라진 미래, 네 청년은 '한탕'에 성공한 후 도주한다. 최우식이 연기한 기혼도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지만, 자신들을 쫓는 사냥꾼한테 가족까지 위협해지자 흔들리기 시작한다.

최근 화상으로 만난 최우식은 '사냥의 시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얼굴이었다"며 "또 같이 출연한 배우들, 감독님과 함께 어떤 과정을 통해 영화를 만들게 될지가 기대됐다"고 말했다.

최우식은 "영화 속 내 모습이 기혼과 어울렸다"고 자평했다.

"처음에는 머리 스타일이 걱정됐어요. 감독님이 참고 하라고 준 것이 리어나도 디카프리오가 반짝이 남치는 모습을 연기하던 젊은 시절 사진이었는데, 저와는 차이가 나서 걱정했거든요. 근데 완성된 영화를 보니 잘 나온 것 같아서 만족해요. (웃음)"

사냥꾼에게 쫓기는 극한의 공포감도 표현해야 했다. "초반부 이후에는 계속 공포에 질려서 긴장하고 맘 흘리는 얼굴을 자주 보여줬는데, 그 공포감을 어떻게 다양

하게 보여줘야 할지 고민했죠. 항상 똑같은 얼굴이면 이상할 것 같아서 장면마다 공포감의 레벨을 정했죠. 그런 데 막상 보니 제가 레벨을 정한 것보다 특수효과로 땀 분장을 한 것이 더 큰 효과가 있었어요."

'사냥의 시간'은 당초 2월 개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연기되고, 넷플릭스 공개 예정이었으나 법정부에 휘말려 그 또한 연기되는 일들을 겪었다. 최우식은 넷플릭스 공개에 대해 "이미 '욕자'로 넷플릭스라는 서비스를 경험해봤었고 '기생충' 이후로 해외 팬들에게 더 빨리 인사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거인"의 영재, '기생충'의 기우, '사냥의 시간'의 기혼까지, 최우식이 연기한 인물들은 어딘가 찼하고 안타까운 청춘의 모습을 하고 있다.

"연기할 때 캐릭터 감정이 툭러코스터처럼 움직이면 더 욕심이 나요. 청년을 대변하는 캐릭터를 일부러 하진 않았지만, 그런 인물들이 성장 과정이나 보여줄 수 있는 매력에 많아요. 그 캐릭터가 성장하면 저도 끝까지 함께 성장하게 된 것 같은 좋은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봉준호 감독님이 "찼하게 생겼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미지가 맞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요즘 다음 작품에 대한 걱정과 고

민이 더 커졌다"며 "자주 욕심이 커져서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이 생겼다"고 털어놨다.

"기생충"을 통해 가장 달라진 것은 "SNS 팔로워 수"라고 답한 최우식은 할리우드 진출 등에 대해서는 "욕심을 많이 내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요즘도 오디션 테이프 찍어서 보내고 있고, (할리우드 진출작) 영화도 논의 중이에요. 올해 될 것 같긴 한데 아직 확정지는 아니고요. 우선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걸 해외 팬들이 더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합뉴스



성동일·김희원·여진구(왼쪽부터)

성동일·김희원·여진구 '바퀴 달린 집' 타고 전국 유랑

tvN 새 예능 6월 방영

배우 성동일, 김희원, 여진구가 출연하는 tvN 새 예능 '바퀴 달린 집'이 오는 6월 방송된다.

최근 tvN에 따르면 '바퀴 달린 집'은 세 배우가 제목 그대로 바퀴 달린 집을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앞마당 삼아 살아보는 과정을 그리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출연진은 움직이는 집을 짓고 소중한 이들을 집에서 손님으로 초대해 하루를 함께 산다. 최소화한 면적에 생활공간을

집약한 집에서 중요한 것들로 일상을 채워가는 라이프스타일을 선보인다.

실제 절친한 사이인 성동일과 김희원이 만행과 들뜬 형 역할을 맡고, 여진구는 막내 역할로 삼 형제의 케미스트리를 자랑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모두가 내 집 마련을 꿈꾸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묶여 있는 집 대신 작고 움직이는 집에서 살아본다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 궁금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배우 최우식이 주연을 맡은 영화 '사냥의 시간'

NCT 드림, 세계 49개 지역 아이튠즈 앨범 1위

미니앨범 '리로드' 차트 톱 올라 중국 QQ뮤직 차트서도 1위

보이그룹 NCT 드림의 새 앨범이 세계 49개 지역에서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했다.

재장전을 뜻하는 이번 NCT 드림의 새 앨범 '리로드'는 중독성 강한 타이틀 곡 '라이딩'을 비롯해 다양한 감성의 총 5곡으로 구성돼 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NCT 드림이 지난 29일 오후 6시 발매한 미니앨범 '리로드'(Reload)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칠레, 프랑스 등 세

계 49개 지역에서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 이 앨범은 중국 최대 음악 사이트 QQ뮤직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이 앨범 타이틀곡 '라이딩'(Ridin')은 30일 오전 8시 기준으로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에서도 실시간 차트 정상에 올랐고 수록곡들도 차트 상위권에 포진했다.

NCT 드림은 30일 오후 8시 신곡 '라이딩' 무대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영상 콘텐츠 'NCT 드림 더 스테이지'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 공개했다.

-연합뉴스

영화 '6천원 할인권' 130만장 코로나 직격탄 극장가 단비 될까

영진위, 21일부터 제공 검토

5월 영화 관람 할인권 130만장이 풀린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극장가 기쁨을 해소할 단비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영화계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와 극장들은 할인권 배포 시기와 방법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진위는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90억원을 투입해 '6천원 할인권' 130만장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극장들은 송지호·김무열 주연 영화 '침입자'가 개봉하는 21일부터 할인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극장 회원이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할인권을 다운로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1인당 하루 2매씩 받을 수 있고, 예매권은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관람료가 1만원이라면, 할인권 적용 때에는 4천 원에 영화를 본다.

극장 관계자는 "할인권을 여러 차례 다운로드만 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혜택이 풀리지 않을 수 있어 당일 사용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예매대행사를 통한 예매나 조조 관람에

는 할인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각 카드사 중복 할인은 가능할 전망이다.

극장들은 할인권 배포가 공공 일어들은 영화시장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터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멀티플렉스 관계자는 "영화관에 관객이 들어야 제작사와 배급사 등 영화계 전체에 현금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할인권이 돈이 돌 수 있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할인 혜택을 주고 싶어도 개봉 영화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침입자'(손원평 감독)가 중급 규모 한국 영화로는 코로나19 이후 첫 포문을 열지만, 다른 배급사와 제작사들은 여전히 개봉 시기를 놓고 눈치를 본다. '침입자'는 총제작비 65억 원으로, 손익분기점은 153만명이다.

소니픽처스와 씨네그루(주)키다리엔터가 공동 배급하는 '결백'은 5월 마지막 주 개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신선-배종옥이 주연한 이 작품 총제작비는 50억원 중반대. 150만명 이상 들어야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기에 막판까지 개봉 시기를 신중하게 조율 중이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장 어 수 산</p> <p>북구 서암대로 88(신안다리앞) 무항생제 장어사용 포장배달·전국택배배송, 선물포장해드립니다. 신용분위</p> <p>☎ 062)412-1961, 010-5828-1961</p>	<p>미가한우명가</p> <p>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뒷편) 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p> <p>☎ 061)333-0505, 010-4390-3366</p>	<p>퀵 타로카드</p> <p>지하철 금남로5가역 4번출구앞(신한은행영) 공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p> <p>타로마스터 ☎ 010-3640-6429</p>	<p>동 양 철 학 원</p> <p>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영일)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합 택일, 개인지도함</p> <p>☎ 062)224-7687, 010-2611-7687</p>
<p>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p>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메뉴 포장및배달가능 직접전화및배달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p> <p>☎ 062)526-5475, 010-8621-5959</p>	<p>남 문 냉 동</p> <p>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4 저온저장고제작수리, 영업용 냉장·냉동수리 에어컨 전문설치</p> <p>☎ 061)333-2779, 010-3610-2779</p>	<p>무크 광주세정점</p> <p>서구 상무대로 773, 세경아울렛2층 258호 화사한 불 신상품 대량인고 남·여 20~40%세일 (일부품목제외)</p> <p>☎ 062)370-9258</p>	<p>신신 예술의 집</p> <p>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p> <p>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p>김 동 일 쉼 프</p> <p>동구 지호로42(지산2동사무소앞마트앞) 갈비해장국, 갈비탕, 육개장, 곰탕전골, 무침조림 예약주문 각종모임환영</p> <p>☎ 062)228-1975, 010-9622-8938</p>	<p>우 리 뷔 페</p> <p>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2월17일 오픈!! 정성과세로운맛으로 보듬어줍니다. (회사·단체 강부환영)</p> <p>☎ 062)381-0066, 010-3085-0140</p>	<p>개성전통한방삼계탕</p> <p>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p> <p>☎ 062)383-3454, 010-2106-0424</p>	<p>한 성 꽃 화 원</p> <p>나주시 나루로71(송월동 LG화화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단, 관엽전국배달</p> <p>☎ 061)334-3200, 010-3623-6921</p>
<p>광명천막기업</p> <p>북구 천변우로 285-1(누문동) 패셔닝, 철구조물창고, 차광막, 일반포장 피라슬, 자비라천막, 차호루</p> <p>☎ 062)526-6153, 010-6646-7282</p>	<p>유가네한우곰팡이 광주대인점</p> <p>동구 대인동 324-18번지 30년전통 깊은 진한곰팡이맛! 한우맑은곰팡, 한우사골순대국, 한우사골 설렁탕 한우육수 육개장 '모든메뉴 포장가능'</p> <p>☎ 062)464-1425</p>	<p>연아불교용품</p> <p>전남 나주시 영산포로261-1 (영산포구역전앞) 불교용품, 무속용품 모든것 조상웃, 양초 판매</p> <p>☎ 061)334-0088</p>	<p>천상일월태주명</p> <p>나주시 남외동33-3번지 남고문두면 중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p> <p>☎ 010-2617-3635</p>
<p>만 福 당</p> <p>동구 계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꿀동풍,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p> <p>☎ 062)959-0680, 010-4602-0680</p>	<p>석 당 화 랭</p> <p>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유품판매</p> <p>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p>자연모기발 안병원헤어샵</p> <p>동구 롯데백화점옆, 금남전자상가 5층 자연모 넘어 기발 맞춤 전문! 중형기발을 자연모 신상품으로 중요 리폼·대여가능</p> <p>☎ 062)227-8084, 010-3608-2943</p>	<p>초 대 화 랭</p> <p>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p> <p>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p>대성각 중화반점</p> <p>동구 무등로306-6 (구시청뒤 도로변) 각종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전화주문시 신속배달</p> <p>☎ 062)430-5342</p>	<p>박 당 화 랭</p> <p>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p> <p>대표 박한승 ☎ 062)222-6866</p>		